



MVPR-2008-41

VIP REPORT

2008. 11. 18.

- 중국 경기급랭과 한국의 대응방안
 - 중국 바오파(保八)정책의 효과와 한계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이주량, 이장균, 주원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334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3669-433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중국 경기급랭과 한국의 대응방안 - 중국 바오파(保八)정책의 효과와 한계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중국경제의 현황과 전망	2
3. 중국의 경기부양책과 기대 효과	8
4. 정책적 시사점	21
■ HRI 경제 지표	27

1. 개요

미국 발(發)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고 다시 실물경제로 파급되고 있다. 선진국 경제가 일제히 침체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경제마저도 둔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무역 흑자 대상국이다. 만약 중국경제마저 침체 국면에 빠진다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도 동반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本稿)는 최근 중국 정부가 수출 부진을 만회하고자 펼치고 있는 경기부양책이 중국경제에 미칠 효과를 추정해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중국경제 현황과 전망

가. 현황

(경제성장률 둔화) 2008년 3/4분기까지 중국의 누적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9.9%로 6년 만에 한 자릿수 대로 하락하여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3/4분기 성장률은 9.0%를 기록하여 5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공업생산 증가율이 처음으로 10%대로 낮아졌으며, 2008년 상반기에만 6~7만 여개의 중소기업이 파산하였다.

(자산시장 가격 하락) 여기에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급격한 가격 하락으로 경제 불안 심리가 더해지고 있다. 2008년 1분기 11.0%까지 치솟았던 주요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10월에는 1.6%로 크게 둔화되었다. 특히 북경, 상해, 심천 등 3대 경제중심 도시의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상해종합주가지수는 2007년 10월 말 6,100을 기록한 이후 2008년 11월 현재 최고점 대비 70% 이상 하락하였다. 일별 거래량 또한 2007년 5월에는 2조 위안을 상회하였으나 최근에는 1/20인 400억 위안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나. 전망

(낙관적 전망) 중국 정부와 관변 학자들은 2009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의 마지노선을 8%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최소 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만 현 실업률 수준인 4%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중국의 실업률 증가는 사회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급변 경기부양책도 「바오파(保八)」(8%의 성장률 유지)를 위한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비관적 전망) 그러나, 중국경제에 대한 해외 기관들의 시각은 그리 밝지 못하다. UBS, Credit Swiss 등 유럽계 은행들은 2009년도 중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7% 대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도이치방크는 6% 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 중국 경기 둔화의 원인

중국경제 성장률 둔화는 대외 수요 급감에 따른 수출 둔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까지 상승하였고, 순수출의 경제성장률 기여율은 24%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8년 들어 미국 발(發) 금융위기 여파로 3/4분기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5%p 정도 하락한 22.3%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 폭은 1.2%p에 달한다. 중국의 수출 둔화는 주요 교역국과 주요 교역 품목에서 두루 나타나고 있다. 3/4분기까지 중국은 10대 교역국 중 일본, 한국, 대만을 제외한 미국, EU를 포함한 7개 지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일제히 둔화되었다. 또한 10대 수출 품목 중 상위 4대 수출 품목인 전기제품, 하이테크 제품, 데이터기기, 의복·약세사리의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미국 발(發)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이 중국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 준다.**

3. 중국의 경기부양책과 기대효과

가. 중국의 경기 부양책

중국은 수출 경기 침체를 내수 진작으로 상쇄시키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 금리 인하, 감세 등 복합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중국은 「내수 확대를 위한 10대 조치」를 발표하고 2009~2010년 동안 4조 위안(800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둘째**,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고 공개시장조작 주기를 연장하였다. **셋째**, 수출활성화를 위해 3,770 여 품목에 대한 수출부가가치세 환급률을 인상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관세를 철폐하였다. **넷째**,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감세 조치를 취하였다. **다섯째**, 국유은행 주식을 매입하고, 국유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였으며 증권 매수 시 거래세를 면제하였다. **여섯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대부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의 효과 및 한계

① 재정지출의 효과

(성장률 제고 효과) 중국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09년과 2010년에 4조 위안의 재정투자가 민간부문 구축 효과와 수입 유발 효과를 가진다고 가정할 때, 각각 1.4%p와

1.2%p의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된다.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하지밍(哈继明)은 공공투자의 2009년도 GDP 제고 효과를 1.8%p로 주장, 재정부 연구소장 자강(贾康)은 GDP 제고효과를 1.5%p~1.8%p로 예측함)

(산업간 파급효과) 中华人民共和国 国家统计局(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의 2002년 기준 산업연관표를 분석한 결과, **건설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재정투입 금액의 3배에 달해 재정투자의 효과 극대화가 기대된다.** 또 건설업 부문에 대한 투자는 금속광물과 기계 및 장비 산업에 대한 생산 유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금속광물, 기계 및 장비, 광업 등 부문에 대한 유발효과가 특히 크며,** 생산유발 기준과는 달리 부동산 리스 사업서비스,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통신, 농업 등 광범위한 산업에 걸쳐 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② 한계 및 부작용

(한계) 그러나 중국 경기부양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많은 한계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중앙 부처 간 마찰로 계획의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경기부양책이 포괄하는 범위가 광범위하여 중앙 부처간 또는 중앙-지방정부간 이견과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투자계획 집행에 있어 자금 투입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중국이 발표한 4조 위안 중 중앙 정부의 직접 투자 규모가 불분명하다.** 중국의 일부 국책 연구기관에서는 중앙 정부의 재원조달 계획이 1조 2,000억 위안에 불과하고 나머지 2조 8,000억 위안 가량은 이로부터 유발되는 지방정부와 민간 부문의 승수 효과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자강(贾康)소장은 "从过去的经验看, 1/3的资金由财政投入就可以了, 因为财政投入的放大效应至少有2至3倍, 能带动其他配套资金":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재정투입은 전체 투입의 1/3이면 족하다. 그 이유는 재정투입의 승수 효과가 2~3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 新华社) 만약 중앙 정부의 직접투자 규모가 2년에 걸쳐 1조 2,000억 위안(연도당 6,000억 위안)이 전부라면 경기부양책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이번 경기부양책은 줄속처리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가 작성한 경기부양책은 제출 2주 만에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관련 부처간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아직도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이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판단해 볼 수 있다. 방대한 투자 계획에 관련 부처, 지방정부, 민간 부문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못한다면 계획의 실효성은 의문시 될 수밖에 없다.

(부작용) 또한 경기부양책이 계획대로 집행되더라도 **첫째, 민간부문에 대한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주도의 막대한 공공투자 확대는 인프라 건설에서 민간 부문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둘째, 재원조달을 위한 대규모 국채의 추가발행은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

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 GDP의 약 3% 수준을 중국 경제가 감내할 재정적자 규모로 설정하고 있다. IMF가 추정된 2010년 중국의 명목 GDP가 33조 2,200억 위안이라 할 때 중국의 재정적자 상한 규모는 약 1조 위안 규모에 불과하다. 따라서 4조 위안을 전액 국채로 충당할 경우 2010년 재정적자/GDP 비중은 12%에 달한다. **셋째, 자산시장의 버블 붕괴 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다.** 경기부양의 대표적 부작용으로 통상 자산시장 버블이 언급된다. 특히 중국 자산 시장이 주가 하락과 부동산 가격하락이 진행중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부양책으로 시장원리에 의한 버블해소 과정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의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내재되어 언젠가 중국 경제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4. 정책적 시사점

첫째, 수출 기업들의 대중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안 시장을 발굴해야 한다. 한국의 대 중국 수출경기는 중국경제의 자체적인 경기하강과 이에 따른 중국정부의 무역역조 개선 요구로 급격하게 둔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자원부국인 중동, 중앙아시아 지역과 신흥경제 세력으로 부상하는 BRICs 지역(중국 이외)의 시장 개척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위기관리가 필요하다. 중국 내수시장 급랭 가능성이 상존하고 인건비 상승, 세제혜택 축소 등 기업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동부 연안 대도시 지역에 산재해 있는 중국 진출 기업들을 인근의 2, 3선 도시로 유도하여 한국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위기 내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중국 진출 기업들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을 제공하고, 국내 금융기관 현지법인을 통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중국에 대한 간접투자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중국 자산시장 침체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 중국 정부의 자산시장 부양책도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 중국 간접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 축소 등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넷째, 바오파(保八)정책의 한국경제에 대한 차이나 효과(China-Effect)를 극대화해야 한다. 8%의 경제 성장률을 지키기 위한 SOC 건설에 대한 중국의 재정지출 확대는 국내 건설업, 건설장비, 건설 자재 등 연관 산업에는 기회요인이라고 판단된다. 정부간 SOC 개발 계획을 공유하고 '새마을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농촌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중국 내 SOC 프로젝트 참여 시 행정적 지원과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세계 시장에서의 한중 간 경쟁심화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은 수출경기 둔화를 우려하여 덤핑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수출 확대 조치에 상응한 수준의 수출 관세 인하 조치를 취하고 무역금융의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국가 브랜드 프리미엄 제고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한국 제품의 브랜드 경쟁력 우위를 지켜야 한다.

중국경기급랭과 한국의 대응방안

-중국바오파(保八)정책의효과와한계-

1. 개요

○ (세계 경제 둔화 전망) 미국 발(发)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 국면에 돌입

- 선진국 경제 :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선진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쇄도하고 있음
 - 최근 OECD는 2009년도 30개 회원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6월의 1.7%에서 0.3%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으며, 미국, 유로존, 일본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경제 :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 중국도 성장 둔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최근 IMF는 2009년 중국 GDP 성장률을 8.5%로, UBS, Credit Swiss 등 유럽계 은행들은 7.5%로, Fitch사는 7.2%까지 전망함

○ (한국경제의 앞날 불투명) 선진 3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경제성장 둔화는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므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함

- 한국은 총 수출의 32.0%를 EU,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추가로 22.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음

< 한국의 주요 교역국 (2008.1~2008.10) >

(단위 : 억 달러, %)

	중국	EU	ASEAN5	미국	일본	중동	홍콩	기타
수출액	787.2	484.7	415.2	376.0	232.8	208.6	165.2	839.9
수출비중	22.0	14.0	12.0	11.0	7.0	6.0	5.0	23.0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중국경제의 현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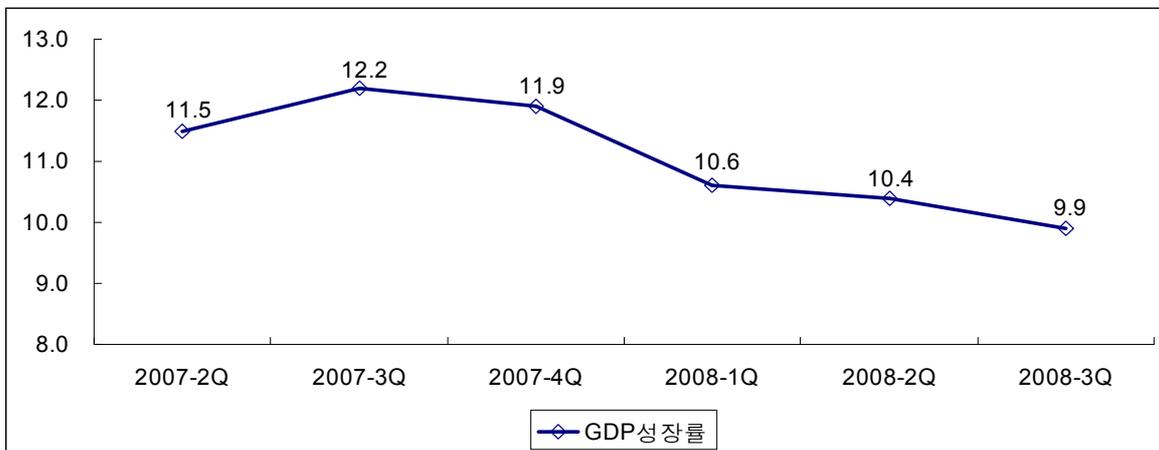
가. 중국경제 현황

○ (성장률 둔화) 미국 발(发) 금융위기에서 유발된 글로벌 경기침체로 3/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6년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 대로 하락

- 경착륙 가능성 고조 :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함으로써 세계경제를 견인해 왔으나 2008년에는 한 자릿수 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 2007년 3/4분기 중국경제 성장률은 12.2%를 기록한 이후 4분기 연속 하락하여 2008년 3/4분기에는 9.9%로 하락함
- 단일 분기성장률은 2008년 들어 1/4분기에는 10.6%를 기록하였으나 2/4분기에는 10.1%로, 3/분기에는 9.0%로 하락하여 경착륙 가능성을 고조시킴

< 중국경제 성장률 추이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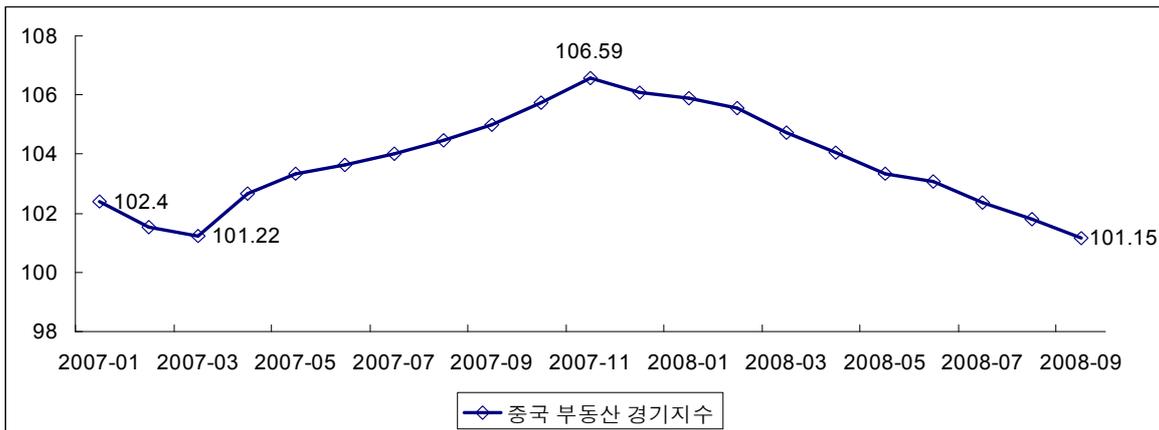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자산시장 버블 붕괴) 중국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은 2007년 말을 기점으로 가격 조정이 시작되었으며, 2008년 들어 버블 붕괴가 본격화되고 있음

- **부동산경기 침체** : 중국 부동산경기는 2007년 11월 이후 급격히 둔화되기 시작 하였으며,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거래량 급감과 가격 하락이 본격화됨
- 중국 부동산경기지수는 2007년 3월 이후 8개월 연속 상승하여 2007년 11월 고점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 9월까지 연속 10개월 동안 하락함

< 중국 부동산경기지수 추이 >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70대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상승률은 2008년 1/4분기 이후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심천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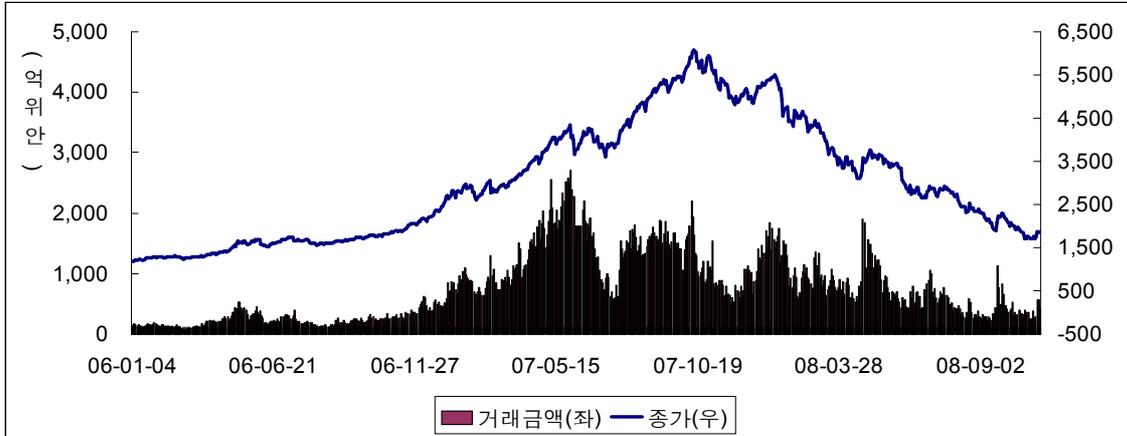
< 중국 70대 도시 부동산 가격상승률 추이 >

	2006				2007				2008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7월	8월	9월	10월
북경	7.1	8.7	9.7	9.5	9.0	9.4	-	-	-	-	10.2	8.9	6.9	5.2
상해	-1.3	-2.8	-1.1	-0.1	0.2	0.8	-	-	-	-	7.5	5.8	2.6	0.4
심천	10.2	14.4	12.8	11.8	12.6	14.3	-	-	-	-	-3.9	-6.4	-10	-12.6
주요도시	5.5	5.7	5.5	5.3	5.6	6.3	8.2	10.2	11.0	9.2	7.0	5.3	3.5	1.6

자료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주식시장** : 중국 증시는 2007년 10월 말 이후 급격한 가격 하락과 거래량 급감 현상을 보임
- 상해종합주가지수는 2008년 11월 말 현재 최고점 대비 70% 이상 하락하였으며 일별 거래금액은 2007년 5월 대비 1/20 수준으로 급감함

< 상해종합주가지수 및 거래량 추이 >



자료 : 상해증권거래소.

나. 중국경제 전망

○ (성장률 둔화 전망) 세계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국경제 성장률 둔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 낙관적 전망 : 중국 내에서는 실업률, 사회안정 등 요인을 고려하여 2009년 성장률을 8~9%로 전망하고 있음
- 비관적 전망 : 그러나 IMF를 제외한 해외 주요 기관들은 2009년도 중국 GDP 성장률을 7% 대로 전망하고 있으며, Deutsche Bank는 6.8%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2009년도 중국경제 성장률 전망치 >

(단위 : %)

	중국인민은행	IMF	UBS, Credit Suisse	Fitch	Deutsche Bank
2009년 중국GDP 성장률	8.0 ~ 9.0	8.5	7.5	7.2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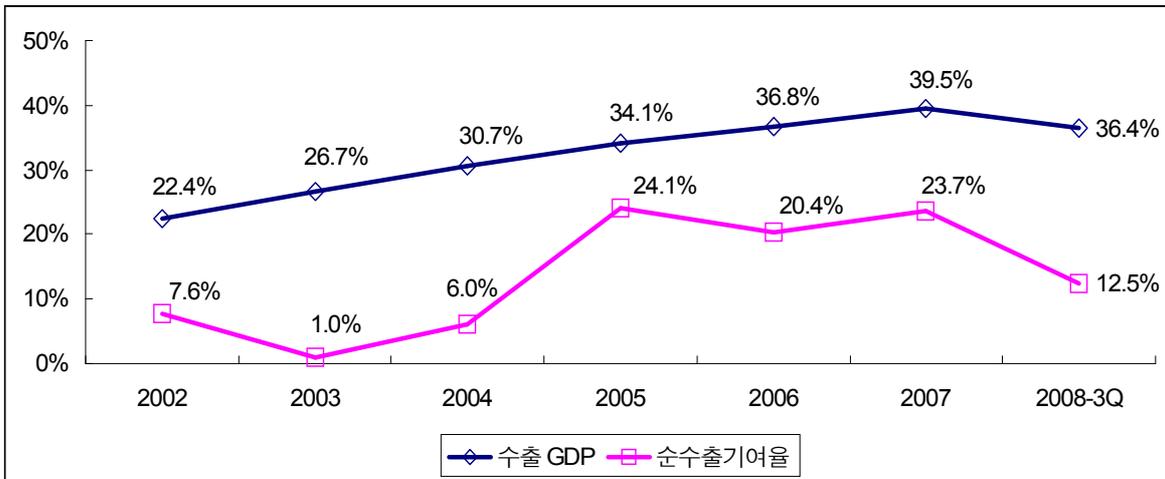
자료 : 中国人民银行, IMF, 각 투자은행 홈페이지.

다. 중국경제 부진의 원인

○ (수출둔화)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경제는 수출 의존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세계 경기 변동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선진국의 경기 변동에 민감함

- 수출 의존도 증가 : 중국은 2001년 이후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순 수출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율도 상승함
 - 2002년 중국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22.4%에서 2007년에는 39.5%로 17.1%p 상승함
 - 순 수출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2002의 7.6%에서 2007년에는 23.7%로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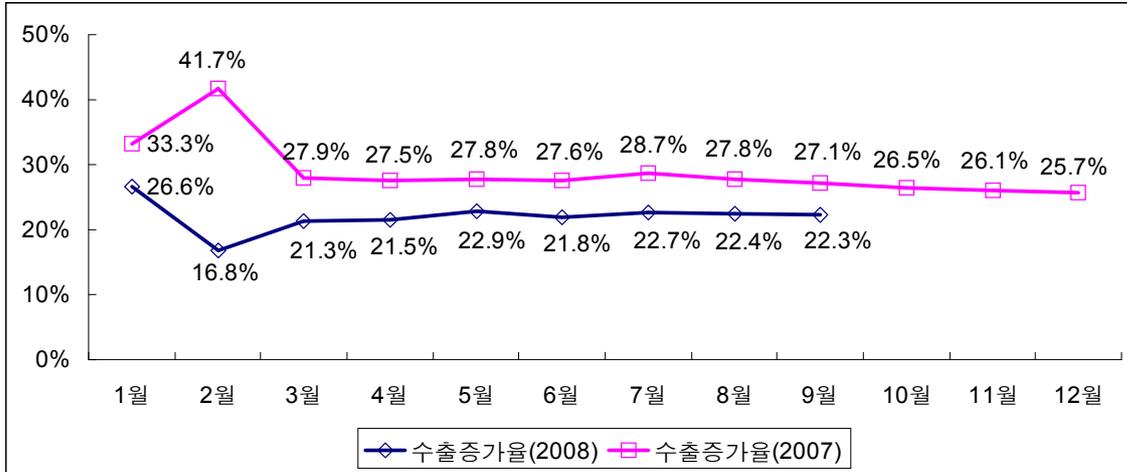
< 중국의 수출/GDP 비중과 순 수출의 기여율 추이 >



자료 : 중국 상무부, 국가통계국.

- 수출 증가율 둔화 : 2008년 들어 중국의 대외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에 비해 평균 5%p 이상 둔화됨
 -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본격화된 2007년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 2월에는 16.8%까지 하락하였다가 2008년 9월 현재는 22.3%를 기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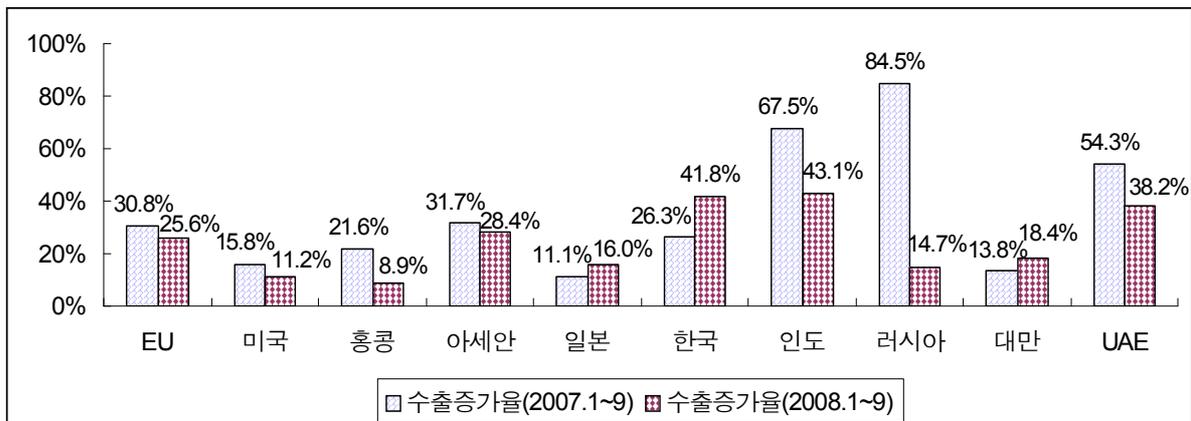
< 중국의 월별 수출 증가율 추이 >



자료 : 중국 상무부.

- **주요 교역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 둔화** : 2008년 들어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중국의 지역별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가 현저하게 나타남
- 2008년 중국은 1~4위의 교역 상대국인 EU, 미국, 홍콩, 아세안에 대한 수출 증가율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 5~6, 9위 교역국인 일본, 한국, 대만에 대한 수출 증가율은 상승하였으나, 7~8, 10위인 인도, 러시아, UAE에 대한 수출 증가율은 큰 폭으로 하락함

< 중국의 주요 교역국에 대한 수출증가율 비교(2007 vs 2008) >



자료 : 중국 상무부, 세관.

-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 증가율 둔화 : 2008년 1/4 ~ 3/4 분기 주요 수출품목 중 대부분은 수출 증가율이 하락함
- 2008년 중국의 1, 2위 수출 품목인 전기제품과 하이테크제품의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4%p 정도 감소하였으며, 데이터기기와 의복·악세사리는 20%p, 철강은 무려 55%p 이상 하락함
- 반면, 방직·섬유, 전화기, 데이터기기부품의 수출 증가율은 소폭 상승함

< 중국의 주요 10대 수출 품목의 수출 증가율 비교 (2007 vs 2008) >

(단위 : 만 달러, %, %p)

순위	수출품목	2008. 1~9		2007. 1~9		증가율변화 (2008-2007)
		수출금액	증가율	수출금액	증가율	
1	전기제품	61,700	24.0	49,723	28.0	-4.0
2	하이테크제품	31,081	20.6	24,428	24.8	-4.2
3	데이터기기	9,960	14.9	8,660	35.7	-20.8
4	의복, 악세사리	8,708	1.8	8,557	23.0	-21.2
5	방직, 섬유	4,986	21.3	4,109	14.2	7.1
6	철강	4,983	46.5	3,401	102.1	-55.6
7	전화기	3,040	13.6	2,675	9.7	3.9
8	농산물	2,968	14.6	2,591	18.7	-4.1
9	데이터기기부품	2,464	5.8	2,330	0.5	5.3
10	신발	2,208	15.1	1,918	16.8	-1.7

자료 : 중국 상무부.

3. 중국의 경기부양책과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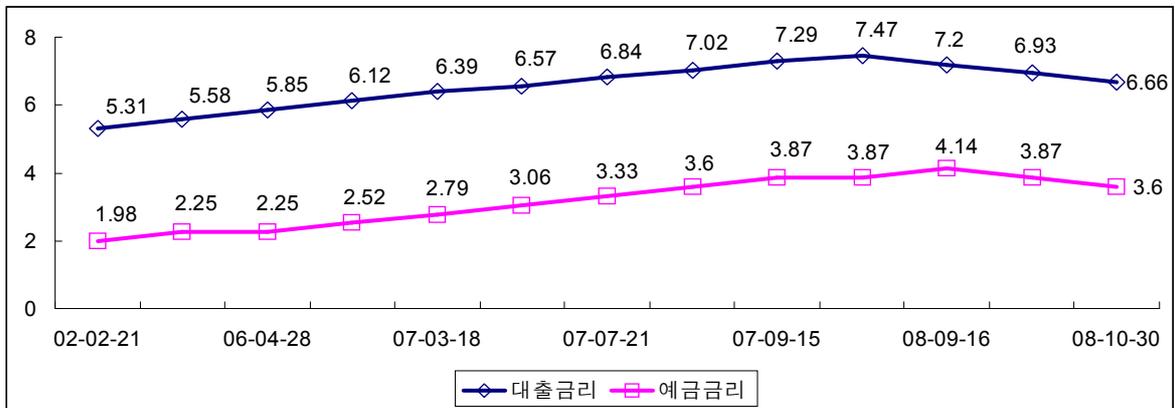
가. 중국의 경기부양책

○ (통화정책 완화) 중국인민은행은 9월 14일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신청을 계기로 기준금리와 금융기관 지급준비율을 인하함으로써 긴축통화 정책에서 느슨한 통화정책으로 선회함

- 기준금리 인하 : 중국은 2002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함
- 중국은 국내 경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 한 해에만 기준 금리를 6회 인상하여 대출과 예금 기준금리를 각각 7.47%와 4.14%까지 인상함
- 중국인민은행은 9월 15일 이후 2개월 동안 대출 기준금리를 3회 인하하고, 예금 기준금리를 2회 인하함

< 중국 금융기관 대출, 예금 기준금리 추이 >

(단위 : %)



자료 : 중국인민은행.

- 지급준비율 인하 : 중국은 2003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함
- 중국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2007~2008년 6월까지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9.0%에서 17.5%까지 총 17회 인상함

·중국은 금리인하와 동시에 2008년 9월 이후 지급준비율을 2회에 거쳐 17.5%에서 16.0%까지 인하함

- **공개시장조치 완화** : 중국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통안증권 발행주기를 연장하고 있음

·2008년 11월부터 중국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대출 상대 별 한도와 금리 규제를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의 완전 자율에 맡김

·과잉 유동성을 방지하기 위해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통안증권의 발행주기를 주 1회에서 격주 발행으로 연장함

○ **(재정지출 확대) 중국 국무원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10대 조치를 발표하고 2009~2010년 2년 간 총 4조 위안(800조 원)을 투입하는 조치 마련**

- **인프라건설 부문 집중 투자** : 중국의 급변 내수 진작 대책은 서민 임대주택 공급 확대, 교통, 의료, 문화 인프라 건설 부문에 집중 투자할 계획임

·(조치 1) 서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목민의 정착시설을 확충하며,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연간 3,000억 위안(60조 원) 투자

·(조치 2) 농촌지역의 수도, 가스, 전력망, 도로망 건설과 남수북조(南水北调)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저수지, 관개(灌溉)수로에 대한 보수를 통해 농촌 지역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킴

·(조치 3) 철도, 도로, 항공 교통망 구축과 도시 지역의 전력망 보수에 최소 2조 위안(400조 원) 이상을 투자

·(조치 4) 소외 지역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중서부 지역의 교육과 문화시설을 확충함

·(조치 5) 도시지역의 오수, 오물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하천오염 방지체계와 방풍림 및 천연림 보호체계를 구축함

·(조치 7) 사천성(四川省) 지진피해지역에 대한 기반시설과 주거시설 복구를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3,000억 위안(60조 원)을 지원함

-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 (조치 6) 기업의 기술 개발과 하이테크 산업화의 추진을 지원하고 서비스업의 육성을 지원함
-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 :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도시 빈민 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범위를 확대함
 - (조치 8) 양곡 구매가격을 인상하고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며, 농지 경작권의 매매 자유화를 실현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킴
 - (조치 8) 또한 도시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최저 생계보조 기준을 점진적으로 인상함
- 부가가치세법 개편 : 기업의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행 생산형 부가가치세법을 소비형으로 개편함
 - (조치 9) 소비형 부가가치세법은 세액 공제 범위에 원재료는 물론 설비투자 부분의 부가가치세액을 포함시킴으로써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유도
- 대출규제 완화 :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부문의 역할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 규제를 완화함
 - (조치 10) 은행의 대출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전략적 프로젝트, 농촌건설, 중소기업의 기술발전과 구조조정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며, 소비금융을 적극 육성함

< 중국 국무원 내수 진작을 위한 10대 조치 >

	10대 조치	주요내용
1	서민 주거환경 개선	- 임대주택 공급 확대, 유목민 정착 시설 투자 확대
2	농촌 인프라투자 확대	- 농촌지역 수도, 전기, 도로 등 인프라 투자 확대
3	교통인프라 확충	- 철도, 도로, 공항 등 교통인프라에 중점적으로 투자
4	의료, 문화인프라 확충	- 중서부 내륙 지역의 의료, 문화 인프라 확충
5	생태환경 보호체계 구축	- 도시 상하수도 시설 구축, 천연림 보호 프로젝트 추진
6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 하이테크 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육성
7	지진 피해지역 복구	- 사천성 지진 피해지역 복구 사업 적극 추진
8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	- 농지 경작권 매매 자유화 실시, 양곡 구매가 인상
9	부가가치세법 개편	- 부가가치세 산정을 생산형에서 소비형으로 개편
10	대출규제 완화	- 농촌, 중소기업,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자료 : 중국 국무원.

○ (수출 활성화) 중국은 2008년 들어 급격한 수출 둔화를 방지하고 고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부가가치세 환급율을 3회에 걸쳐 인상함

- 1차 인상 : 국세총국은 2008년 8월 1일부터 2,880개 수출 품목에 대해 수출부가가치세 환급율을 인상함
·수출둔화가 가시화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노동집약산업인 방직, 복장 제품의 환급율을 종전 11%에서 13%로 인상함
- 2차 인상 : 중국 국세총국은 11월 1일부터 3,486개 품목에 대해 수출부가가치세 환급율을 인상함
·방직, 복장, 완구 등 노동집약산업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률을 종전의 13%에서 14%로 추가 인상함
·에이즈 치료제 등 고부가가치, 첨단 의약품의 수출부가가치세 환급률을 11%에서 13%로 인상 조치함
- 3차 인상 : 중국 국세총국은 12월 1일부터 올 들어 세 번째로 3,770개의 품목에 대해 수출부가가치세 환급율을 인상하고 일부 제품의 수출관세를 폐지함
·중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전기제품의 수출부가가치세 환급율을 인상하고, 철강, 화학제품, 일부 곡물에 대해서는 수출관세를 철폐함

< 수출부가가치세 환급율 인상 조치 요약 >

	시기	주요 품목	환급율 변동(%)	적용 품목 수(개)	비중 (%)
1	2008.08.01	- 방직, 복장 - 대나무(竹)제품	11 → 13 9 → 11	2,880	23.0
2	2008.11.01	- 방직, 복장, 완구 - 도자기 - 플라스틱 - 가구 - 첨단 의약품	13 → 14 9 → 11 7 → 9 9 → 11, 13 11 → 13	3,486	25.8
3	2008.12.01	- 전기제품 - 철강, 화학제품, 곡물	n. a. 관세 철폐	3,770	27.9

자료 : 중국 국세총국.

○ (부동산시장 부양) 중국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가격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대출 금리와 세율을 인하하고 일부 세목에 대해 면세 조치함

- **금리 인하** : 중국은 근로소득자의 공동 주택기금 대출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취득을 용이하게 함
 - 공동 주택기금 대출금리를 0.27%p 인하함으로써 만기 5년 미만 대출 금리는 4.32%에서 4.05%로, 5년 이상은 4.86%에서 4.59%로 인하함
 - 또한 1인 1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대출 기준금리의 70%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감세** : 중국은 주택 거래비용을 줄여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세와 토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등록세를 인하함
 - 개인의 주택 매매 시 부동산 거래세(거래금액의 0.3%)와 토지부가가치세(거래차익의 0.5%)를 면제함
 - 또한 90㎡ 이하 주택 취득 시 등록세율을 취득가액의 3%에서 1%로 인하함

< 중국 부동산시장 부양책 >

구분	항목	내용
금리	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 공동 주택기금 대출금리를 0.27%p 인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 1인 1주택 구입 시 대출 금리 혜택 부여
세제	부동산 거래세 면제	- 개인의 주택 매매 시 거래세 면제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면제	- 개인의 주택 매매 시 토지 부가가치세 면제
	등록세 인하	- 90㎡ 이하 주택 취득에 한해 등록세 1%로 인하
선불금	선불금 비율 축소	- 주택담보대출 선불금 비율 20%로 하향 조정

자료 : 중국 발전과개혁위원회.

○ (증시 부양) 중국은 정부는 국유은행주식을 매입하고 국유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였으며 증권 매수 시 거래세를 면제함

- 회금공사(汇进公司)는 공상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등 3대 국유은행 주식 1,200억 위안(24조 원) 정도를 추가로 취득하고 교통은행, 광다(光大)은행 등 상장은행에는 200억 위안(4조 원)을 출자함

- 국유자산관리위원회는 상장 국유기업들이 발행 주식의 5% 한도 내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을 허용함
- 재정부는 증권거래세의 쌍방향 징수제도를 매도 시에만 부과하는 제도로 변경함

○ (중소기업 지원) 중국은 수출 둔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대부업의 활성화를 추진

- 중국인민은행은 8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한도를 5~10% 확대한 데 이어 11월에는 대출한도를 폐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완전자율에 맡김
-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원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 기업과 개인의 금융대부업체 설립을 허용함

< 일자별 경기침체에 대한 중국의 대응책 >

구분	발표일	내용
통화정책	11월 05일	금융기관 대출규제 폐지, 통안증권 발행 자제
	10월 30일	예금, 대출 기준금리 0.27%p 인하
	10월 08일	예금, 대출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
	09월 15일	6년 만에 처음으로 대출 기준금리 인하
재정정책	11월 09일	내수확대를 위한 10대 조치 발표
	10월 24일	국무원, 2조 위안 규모의 철도건설 투자 승인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책	11월 09일	중소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한도 폐지
	11월 06일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 방법과 한도 상향 조정
	10월 23일	중소기업 유동성을 위해 민간대부회사 설립 허용
수출확대정책	11월 01일	3,500개 이상 품목에 대해 수출부가가치세 환급률 인상
부동산부양책	10월 22일	전면적인 부동산 부양책 발표
증시부양책	09월 18일	회금공사 국유은행 지분 추가 매입
	09월 18일	증권 매수 시 거래세 면제
세계개혁	11월 10일	부가가치세 산정 방법 개편(생산형→소비형)
	10월 09일	예금이자소득세 폐지
농촌개혁	10월 20일	농지경작권 매매 허용, 양곡 수매가 인상

자료 : 新浪财经(finance.sina.com.cn).

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의 효과 및 한계

① 재정지출의 효과

○ (성장률 제고 효과) 중국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09년과 2010년에 4조 위안의 재정투자로 양 연도에 각각 1.4%p 및 1.2%p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가질 것으로 추정됨¹⁾

- 산업연관 분석 모형에 따를 때 중국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09년과 2010년에 4조 위안의 재정투자로 각각 1.4%p 및 1.2%p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하지밍(哈继明)은 1.8%p 성장률 제고 효과까지 주장하고 있음

- 1) ① 케인즈의 단순 총수요 모형에서 재정의 민간 구축효과가 없고 총수요 확대에 의한 수입 유발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는 2009년 실질 GDP 증가율을 약 10.8% 포인트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산.
- ② 그러나 보다 경제 현실에 대한 반영도가 높은 산업연관 모형과 수입유발효과가 존재하고 민간 부문 구축률이 50%를 가정할 경우 2조 위안의 재정투자는 2009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1.4%p 제고하는 효과를 가짐.
- ③ 한편 산업연관 모형에서 수입유발효과와 민간구축률 100%를 가정할 경우, 재정투자는 오히려 성장률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냄

< Case별 중국의 재정 투자 효과 >

(단위: 억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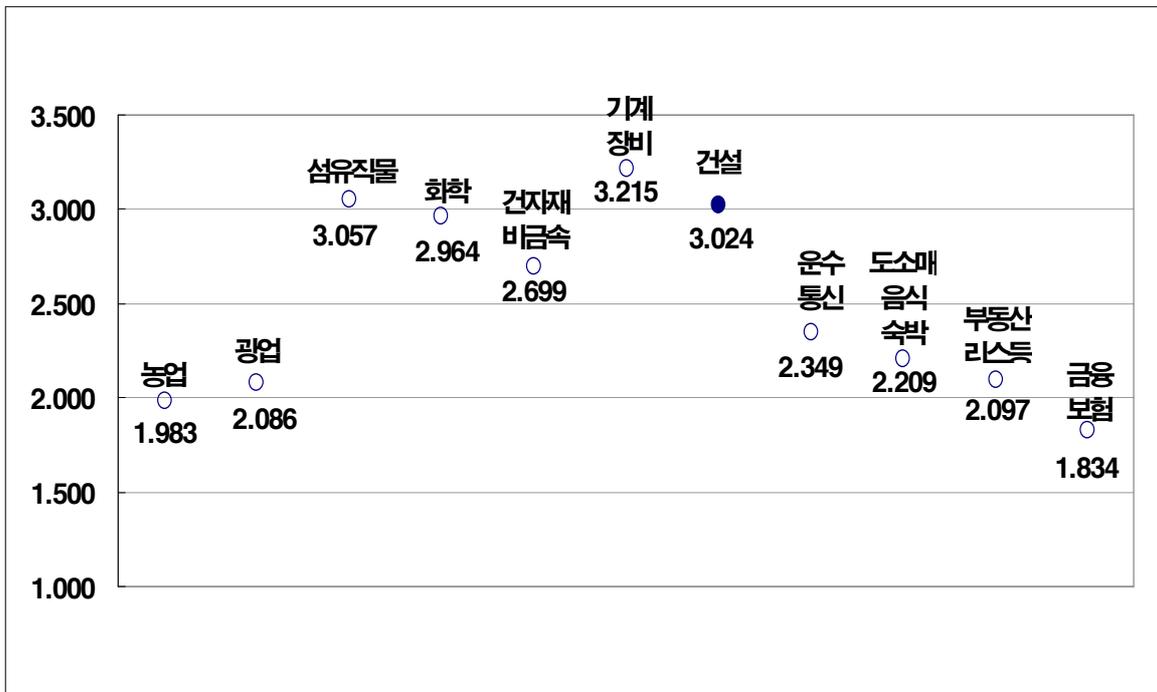
	수입유발효과	민간구축률	명목재정투자	명목GDP 증가분	실질GDP 증가분	2009년 성장률 제고 효과
총수요 모형	×	0%	20,000	32,793	11,754	10.8%p
	○	100%	20,000	12,793	4,585	4.2%p
산업연관모형	×	0%	20,000	20,000	7,168	6.6%p
	○	50%	20,000	4,160	1,491	1.4%p
	○	100%	20,000	△5,840	△2093	△1.9%p

주: 총수요 모형에서 한계소비성향은 0.39%(2002~2006년 국민계정상 총소비와 GDP로 계산된 한계소비성향의 평균)로 가정.

○ (산업간 파급 효과) 중국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09년과 2010년에 4조 위안의 재정투자가 대부분 건설투자에 집중되고 있어 건설 자재, 건설 장비, 기초 인프라가 유망 산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의 2002년 기준 산업연관표를 분석해 본 결과, 건설업은 재정투입 금액의 3배 이상의 직간접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됨
- 건설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002년 기준 3.024로 기계장비(3.215), 섬유직물(3.057) 등과 같이 상당히 높은 파급 효과를 가짐
- 생산유발계수는 해당 산업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때 해당산업의 생산(직접효과)과 이로 인해 파급되는 다른 산업의 생산(간접효과) 단위를 말함
- 즉 2조 위안을 건설업 부문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 유발액은 약 6조 위안이 되지만, 농업에 투자하는 경우 약 4조 위안의 생산 유발효과에 그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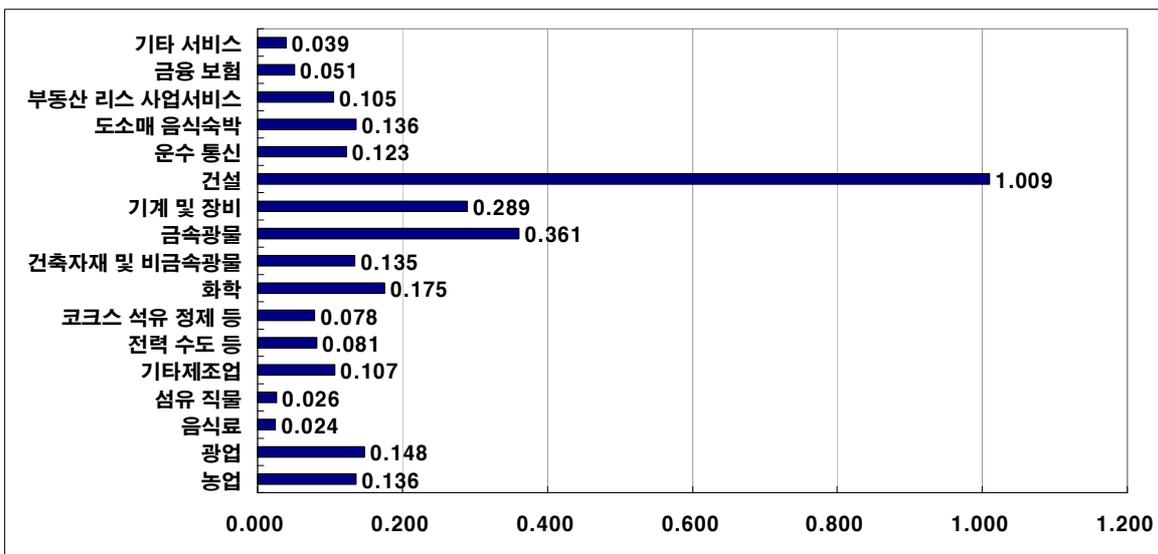
< 중국의 주요 업종별 생산유발계수(2002년 기준) >



주 : 중국 국가통계국 「中國統計年鑑 2007」을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도출.

- 중국 정부는 이러한 건설업의 높은 생산유발 효과를 이용하여 재정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함
 - 특히 재정 투자가 건설업 부문 중 SOC 확충에 집중될 경우 장기적으로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또한 통계 이용상의 제약으로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를 도출할 수는 없었으나, 한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가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건설업에 대한 재정투입으로 실업 문제도 해결하려는 동기를 가짐
- 건설업 부문의 최종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유발되는 생산유발계수를 다시 산업별로 배분해 보면,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은 금속광물(0.361), 기계 및 장비(0.289) 등을 들 수 있음
 - 생산유발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2009년 2조 위안의 투자를 가정할 때, 건설업 내에서 약 2조 186.4억 위안의 생산이 유발
 - 또한 2차 파급 효과에 의해 금속광물업이 7,219.4억 위안, 기계 및 장비업이 5,783.6억 위안의 추가적인 생산이 유발될 것으로 추정

< 중국의 건설 부문 최종수요의 산업별 생산유발계수(2002년 기준) >



주 : 중국 국가통계국 「中國統計年鑑 2007」을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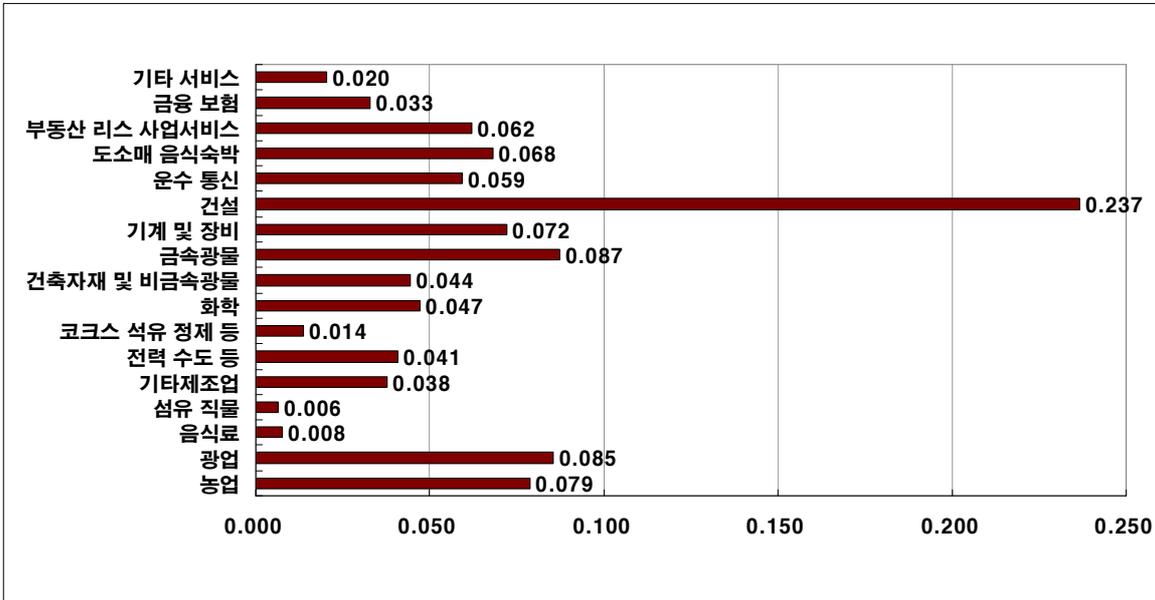
< 중국의 건설 부문 최종수요의 산업별 생산유발액(2002년 기준) >
(단위: 억 위안)

산업	생산유발액	산업	생산유발액
농업	2,710.5	금속광물	7,219.4
광업	2,950.8	기계 및 장비	5,783.6
음식료	489.2	건설	20,186.4
섬유직물	513.3	운수통신	2,465.8
기타제조업	2,145.9	도소매 음식숙박	2,722.2
전력수도 등	1,623.7	부동산 리스 사업서비스	2,108.3
코크스석유정제 등	1,564.8	금융 보험	1,024.8
화학	3,500.0	기타 서비스	776.4
건축자재 및 비금속광물	2,696.7	경제 전체	60,481.8

주 : 중국 국가통계국 「中國統計年鑑 2007」을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도출.

- 건설업 부문의 최종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유발되는 부가가치유발계수를 다시 산업별로 배분해 보면,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은 금속광물(0.087), 기계 및 장비 (0.072), 광업(0.085) 등을 들 수 있음
- 부가가치유발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2009년 2조 위안의 투자를 가정할 때, 건설업 내에서 약 4,731.6억 위안의 부가가치가 유발
- 또한 2차 파급 효과에 의해 금속·광물업이 1,746.6억 위안, 기계 및 장비 업이 1,439.7억 위안의 추가적인 생산이 유발될 것으로 추정
- 특히 부가가치 유발 기준으로는 생산유발 기준과는 달리 부동산 리스 사업서비스,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 통신, 광업, 농업 등 많은 산업들이 부가가치 생산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건설 부문 최종수요의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2002년 기준) >



주 : 1) 중국 국가통계국 「中國統計年鑑 2007」을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도출
 2) 중국 산업연관표(영문)는 국산거래표와 수입거래표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수입유발계수를 포함하고 있음.

< 중국의 건설 부문 최종수요의 산업별 부가가치유발액(2002년 기준) >

(단위: 억 위안)

산업	부가가치유발액	산업	부가가치유발액
농업	1,577.3	금속광물	1,746.6
광업	1,706.5	기계 및 장비	1,439.7
음식료	151.9	건설	4,731.6
섬유직물	126.7	운수통신	1,186.1
기타제조업	752.1	도소매 음식숙박	1,364.5
전력수도 등	813.2	부동산 리스 사업서비스	1,242.5
코크스석유정제 등	271.9	금융 보험	655.2
화학	942.5	기타 서비스	404.9
건축자재 및 비금속광물	886.8	경제 전체	20,000.0

주 : 중국 국가통계국 「中國統計年鑑 2007」을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도출.

② 재정지출의 한계점과 부작용

○ (한계점)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포괄범위가 광대하고, 정부의 투자규모가 불분명하며, 재원조달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한계점을 안고 있음

- 포괄범위 광대 : 내수확대 조치의 포괄범위가 광대하여 투자계획 집행에 있어 중앙 부처 간 마찰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순조로운 투자 집행이 곤란할 수 있음
·금번 내수확대 조치는 교통, 문화, 농촌 인프라에서부터 환경, 산업 등 다양한 부문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음

- 중앙재정 부담 비중 불분명 : 내수확대 조치 소요 자금 중 중앙재정의 부담 비중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재정부(財政部)재정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4조 위안은 3 : 1의 승수효과를 고려한 수치로, 실제 중앙재정 부담 분은 1조 2천억 위안에 그칠 것으로 기대

- 부양책 줄속 처리 : 국가발전개혁위가 입안한 경기부양책은 2주 만에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 조차 확정짓지 못함

·통상 중국은 차기년도 경제정책을 11월~12월에 개최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되고 비준되지만, 금번 조치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음

○ (부작용)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민간부문에 대한 구축효과 발생, 재정악화 및 자산시장 버블 붕괴 지연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구축효과 : 정부주도의 공공투자 확대는 인프라 건설에서 민간부문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음

- 재정악화 : 2008년 3/4분기 들어 중국의 재정수입은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대규모 감세조치가 시행 예정이어서 향후 재정 악화가 우려됨

- 자산시장 버블 붕괴 지연 : 중국의 부동산, 증권 시장 경기 부양책은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있음

③ 기타 경기부양책

- **통화정책 완화** : 중국의 금리인하 조치는 국내 유동성 경색 국면을 완화하고 가계의 소비여력을 증가시키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잠재적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2007년 11월 이후 급감하던 기업과 가계 대출 증가율이 2008년 9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어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함
- **수출확대** : 중국의 수출부가가치세 환급율 인상 조치의 수출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음
 - 중국 수출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침체에 따른 외수 감소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수출 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2007년 중국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유로 저부가가치 품목에 대한 수출부가가치 환급율을 대폭 인하하였으나, 최근 거의 대부분 품목에 대해 2007년 이전 수준으로 원상 복귀시킴
- **부동산 부양** :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부양책이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버블 해소 과정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음
 -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 원인은 버블 형성으로 인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괴리에 있으므로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움
 - 오히려 부동산 시장 관련 규제와 대출 정책의 완화로 추가적 버블 형성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버블 해소 과정이 지연될 수 있음
- **증시 부양** : 중국의 증시 부양책은 주식 가격의 형성을 심하게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국 증시 발전에도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임
 - 중국 증시 급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비유통주식의 유통화에 있으므로 정부의 추가 출자나 국유기업의 자사주 매입 행위는 문제를 악화시킴
 - 정부 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정책시(政策市)'로 회귀함으로써 불확실성이 증가함

4. 정책적 시사점

○ 첫째, 수출 기업들의 대중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안 시장을 발굴해야 함

- 한국의 대 중국 수출 경기는 중국경제의 자체적인 경기하강과 이에 따른 중국 정부의 무역 역조 개선 요구로 급격하게 둔화될 우려가 있음
- 자원부국인 중동, 중앙아시아 지역과 신흥경제 세력으로 부상하는 BRICs 지역 (중국 이외)의 시장 개척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 둘째,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위기관리가 필요함

- 중국 내수시장 급랭 가능성이 상존하고 인건비 상승, 세제혜택 축소 등 기업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음
- 동부 연해 대도시 지역에 산재해 있는 중국 진출 기업들을 인근의 2, 3선 도시로 유인하여 한국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위기 내성을 강화해야 함
- 또한 중국 진출 기업들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을 제공하고, 국내 금융기관 현지법인을 통한 금융지원을 중용해야 함

○ 셋째, 중국에 대한 간접투자 리스크 관리가 요구됨

- 중국 자산시장 침체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 중국 정부의 자산시장 부양책도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임
-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 중국 간접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 축소 등을 적극 유도해야 함

- 넷째, 바오파(保八)정책의 한국경제에 대한 차이나 효과(China-Effect)를 극대화해야 함
- 8%의 경제 성장률을 지키기 위한 SOC 건설에 대한 중국의 재정지출 확대는 국내 건설업, 건설장비, 건설 자재 등 연관 산업에는 기회요인이라고 판단됨
- 정부간 SOC 개발 계획을 공유하고 '새마을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농촌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야 함
- 국내 기업들이 중국 내 SOC 프로젝트 참여 시 행정적 지원과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임

○ 다섯째, 세계 시장에서의 한중 간 경쟁 심화에 대비해야 함

- 중국은 수출경기 둔화를 우려하여 덤핑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의 수출 확대 조치에 상응한 수준의 수출 관세 인하 조치를 취하고 무역금융의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차원에서 국가 브랜드 프리미엄 제고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한국 제품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야 함 

이만용 연구위원 (02-3669-4123, danieli@hri.co.kr)

【별첨】 중국 산업연관표 총거래표 및 주요 계수(coefficient)표 (2002년 기준)

■ 총거래표

역 위안	농업	광업	음식료	섬유 직물	기타 제조업	전력 수도 등	코크스 석유 정제 등	화학
농업	4,637	40	4,867	1,493	793	2	5	663
광업	98	352	58	51	89	1,364	3,739	964
음식료	1,572	2	1,952	247	12	0	0	166
섬유 직물	21	52	29	5,808	446	22	9	146
기타제조업	161	98	345	219	3,192	33	20	398
전력 수도 등	331	668	160	258	292	406	160	1,032
코크스 석유 정제 등	281	267	35	47	100	339	316	727
화학	1,925	358	477	1,367	1,259	76	111	8,097
건축자재 및 비금속광물	90	72	83	33	72	18	15	122
금속광물	116	413	127	67	535	75	61	341
기계 및 장비	396	731	127	293	388	773	176	539
건설	50	14	4	7	10	8	2	12
운수 통신	615	382	390	334	487	324	296	715
도소매 음식숙박	796	318	775	853	819	342	222	928
부동산 리스 사업서비스	119	200	336	402	264	71	68	454
금융 보험	451	161	115	156	159	227	56	245
기타 서비스	287	223	106	141	107	151	71	216
중간 투입	11,948	4,351	9,984	11,774	9,023	4,232	5,328	15,763
총부가가치	16,630	5,967	4,497	3,861	4,869	4,246	1,121	5,809
총투입	28,579	10,317	14,481	15,635	13,892	8,478	6,448	21,573

역 위안	건축자재 및 비금속광물	금속광물	기계 및 장비	건설	운수 통신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 리스 사업서비스	금융 보험	기타 서비스
농업	4	4	11	2,286	132	1,269	11	0	122
광업	561	1,988	244	703	78	50	43	3	205
음식료	0	0	0	25	36	1,810	21	1	289
섬유 직물	46	56	193	106	62	206	38	27	884
기타제조업	256	822	726	1,076	144	780	610	161	1,719
전력 수도 등	357	1,067	678	417	210	486	236	80	591
코크스 석유 정제 등	176	607	222	716	1,808	291	51	26	286
화학	388	429	3,044	1,054	137	399	65	33	1,813
건축자재 및 비금속광물	469	336	582	3,058	26	40	92	9	132
금속광물	303	7,507	6,298	4,691	83	77	193	15	206
기계 및 장비	294	834	16,136	2,595	1,444	1,427	2,682	265	1,459
건설	5	11	22	34	196	230	370	112	756
운수 통신	339	871	1,135	1,276	1,629	668	245	207	1,010
도소매 음식숙박	328	902	2,001	1,404	425	1,295	648	284	1,795
부동산 리스 사업서비스	120	351	1,195	1,494	305	1,461	803	797	1,750
금융 보험	178	188	514	235	725	1,123	759	499	517
기타 서비스	71	223	371	369	140	503	250	121	1,183
중간 투입	3,896	16,196	33,372	21,538	7,581	12,115	7,117	2,638	14,715
총부가가치	1,909	5,169	11,060	6,594	7,026	12,176	10,214	4,676	16,035
총투입	5,805	21,365	44,432	28,133	14,606	24,291	17,331	7,314	30,751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中國統計年鑑 2007」.

■ 투입계수표 : A형²⁾

	농업	광업	음식료	섬유 직물	기타 제조업	전력 수도 등	코크스 석유 정제 등	화학
농업	0.162	0.004	0.336	0.095	0.057	0.000	0.001	0.031
광업	0.003	0.034	0.004	0.003	0.006	0.161	0.580	0.045
음식료	0.055	0.000	0.135	0.016	0.001	0.000	0.000	0.008
섬유 직물	0.001	0.005	0.002	0.371	0.032	0.003	0.001	0.007
기타제조업	0.006	0.010	0.024	0.014	0.230	0.004	0.003	0.018
전력 수도 등	0.012	0.065	0.011	0.017	0.021	0.048	0.025	0.048
코크스 석유 정제 등	0.010	0.026	0.002	0.003	0.007	0.040	0.049	0.034
화학	0.067	0.035	0.033	0.087	0.091	0.009	0.017	0.375
건축자재 및 비금속광물	0.003	0.007	0.006	0.002	0.005	0.002	0.002	0.006
금속광물	0.004	0.040	0.009	0.004	0.038	0.009	0.009	0.016
기계 및 장비	0.014	0.071	0.009	0.019	0.028	0.091	0.027	0.025
건설	0.002	0.001	0.000	0.000	0.001	0.001	0.000	0.001
운수 통신	0.022	0.037	0.027	0.021	0.035	0.038	0.046	0.033
도소매 음식숙박	0.028	0.031	0.054	0.055	0.059	0.040	0.034	0.043
부동산 리스 사업서비스	0.004	0.019	0.023	0.026	0.019	0.008	0.011	0.021
금융 보험	0.016	0.016	0.008	0.010	0.011	0.027	0.009	0.011
기타 서비스	0.010	0.022	0.007	0.009	0.008	0.018	0.011	0.010

	건축자재 및 비금속광물	금속광물	기계 및 장비	건설	운수 통신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 리스 사업서비스	금융 보험	기타 서비스
농업	0.001	0.000	0.000	0.081	0.009	0.052	0.001	0.000	0.004
광업	0.097	0.093	0.005	0.025	0.005	0.002	0.002	0.000	0.007
음식료	0.000	0.000	0.000	0.001	0.002	0.075	0.001	0.000	0.009
섬유 직물	0.008	0.003	0.004	0.004	0.004	0.008	0.002	0.004	0.029
기타제조업	0.044	0.038	0.016	0.038	0.010	0.032	0.035	0.022	0.056
전력 수도 등	0.062	0.050	0.015	0.015	0.014	0.020	0.014	0.011	0.019
코크스 석유 정제 등	0.030	0.028	0.005	0.025	0.124	0.012	0.003	0.004	0.009
화학	0.067	0.020	0.069	0.037	0.009	0.016	0.004	0.005	0.059
건축자재 및 비금속광물	0.081	0.016	0.013	0.109	0.002	0.002	0.005	0.001	0.004
금속광물	0.052	0.351	0.142	0.167	0.006	0.003	0.011	0.002	0.007
기계 및 장비	0.051	0.039	0.363	0.092	0.099	0.059	0.155	0.036	0.047
건설	0.001	0.001	0.000	0.001	0.013	0.009	0.021	0.015	0.025
운수 통신	0.058	0.041	0.026	0.045	0.111	0.027	0.014	0.028	0.033
도소매 음식숙박	0.056	0.042	0.045	0.050	0.029	0.053	0.037	0.039	0.058
부동산 리스 사업서비스	0.021	0.016	0.027	0.053	0.021	0.060	0.046	0.109	0.057
금융 보험	0.031	0.009	0.012	0.008	0.050	0.046	0.044	0.068	0.017
기타 서비스	0.012	0.010	0.008	0.013	0.010	0.021	0.014	0.017	0.038

주 : 중국 통계청 「中國統計年鑑 2007」을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도출.

2) 이하 계수표는 이용 자료의 한계 상 국산거래와 수입거래가 나누어지지 않았음에 유의.

■ 생산유발계수표 : $(I-A)^{-1}$ 형

	농업	광업	음식료	섬유 직물	기타 제조업	전력 수도 등	코크스 석유 정제 등	화학
농업	1.243	0.025	0.502	0.234	0.130	0.020	0.028	0.094
광업	0.044	1.107	0.050	0.066	0.078	0.242	0.701	0.167
음식료	0.087	0.011	1.200	0.060	0.026	0.011	0.013	0.033
섬유 직물	0.009	0.018	0.015	1.605	0.078	0.015	0.019	0.030
기타제조업	0.029	0.040	0.063	0.063	1.334	0.033	0.042	0.069
전력 수도 등	0.036	0.099	0.045	0.067	0.069	1.088	0.101	0.117
코크스 석유 정제 등	0.032	0.056	0.032	0.040	0.046	0.073	1.103	0.091
화학	0.164	0.110	0.155	0.297	0.258	0.079	0.121	1.674
건축자재 및 비금속광물	0.009	0.016	0.015	0.013	0.017	0.012	0.016	0.019
금속광물	0.039	0.123	0.058	0.067	0.133	0.092	0.118	0.103
기계 및 장비	0.077	0.193	0.096	0.144	0.153	0.237	0.205	0.171
건설	0.006	0.006	0.006	0.007	0.007	0.006	0.007	0.007
운수 통신	0.055	0.079	0.076	0.084	0.096	0.085	0.118	0.105
도소매 음식숙박	0.067	0.076	0.115	0.147	0.135	0.090	0.104	0.125
부동산 리스 사업서비스	0.028	0.050	0.058	0.080	0.063	0.043	0.057	0.071
금융 보험	0.036	0.040	0.039	0.049	0.046	0.054	0.047	0.050
기타 서비스	0.022	0.037	0.025	0.033	0.028	0.036	0.041	0.035
합계	1.983	2.086	2.550	3.057	2.697	2.215	2.840	2.964

	건축자재 및 비금속광물	금속광물	기계 및 장비	건설	운수 통신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 리스 사업서비스	금융 보험	기타 서비스
농업	0.037	0.033	0.037	0.136	0.035	0.125	0.024	0.019	0.047
광업	0.207	0.244	0.112	0.148	0.133	0.048	0.044	0.029	0.059
음식료	0.017	0.016	0.018	0.024	0.014	0.105	0.012	0.009	0.027
섬유 직물	0.031	0.023	0.027	0.026	0.018	0.025	0.015	0.015	0.061
기타제조업	0.100	0.111	0.083	0.107	0.043	0.073	0.076	0.053	0.105
전력 수도 등	0.120	0.127	0.082	0.081	0.051	0.048	0.041	0.030	0.052
코크스 석유 정제 등	0.079	0.087	0.055	0.078	0.168	0.036	0.024	0.021	0.038
화학	0.195	0.132	0.242	0.175	0.083	0.096	0.074	0.048	0.164
건축자재 및 비금속광물	1.100	0.037	0.037	0.135	0.013	0.011	0.018	0.009	0.016
금속광물	0.167	1.626	0.400	0.361	0.091	0.065	0.108	0.050	0.076
기계 및 장비	0.211	0.217	1.696	0.289	0.256	0.176	0.316	0.135	0.167
건설	0.008	0.008	0.008	1.009	0.020	0.016	0.027	0.022	0.031
운수 통신	0.126	0.123	0.104	0.123	1.169	0.068	0.052	0.057	0.077
도소매 음식숙박	0.129	0.129	0.141	0.136	0.083	1.105	0.086	0.075	0.113
부동산 리스 사업서비스	0.068	0.067	0.087	0.105	0.061	0.098	1.083	0.142	0.095
금융 보험	0.070	0.049	0.053	0.051	0.082	0.075	0.069	1.093	0.045
기타 서비스	0.035	0.038	0.035	0.039	0.027	0.036	0.028	0.028	1.055
합계	2.699	3.067	3.215	3.024	2.349	2.209	2.097	1.834	2.229

주 : 중국 통계청 「中國統計年鑑 2007」을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도출.

■ 부가가치유발계수표 : $\widehat{A}^V(I-A)^{-1}$ 형

	농업	광업	음식료	섬유 직물	기타 제조업	전력 수도 등	코크스 석유 정제 등	화학
농업	0.723	0.014	0.292	0.136	0.076	0.012	0.016	0.055
광업	0.025	0.640	0.029	0.038	0.045	0.140	0.405	0.097
음식료	0.027	0.003	0.373	0.019	0.008	0.003	0.004	0.010
섬유 직물	0.002	0.005	0.004	0.396	0.019	0.004	0.005	0.007
기타제조업	0.010	0.014	0.022	0.022	0.467	0.012	0.015	0.024
전력 수도 등	0.018	0.050	0.022	0.033	0.035	0.545	0.051	0.059
코크스 석유 정제 등	0.006	0.010	0.006	0.007	0.008	0.013	0.192	0.016
화학	0.044	0.030	0.042	0.080	0.069	0.021	0.032	0.451
건축자재 및 비금속광물	0.003	0.005	0.005	0.004	0.006	0.004	0.005	0.006
금속광물	0.009	0.030	0.014	0.016	0.032	0.022	0.028	0.025
기계 및 장비	0.019	0.048	0.024	0.036	0.038	0.059	0.051	0.043
건설	0.001	0.001	0.001	0.002	0.002	0.001	0.002	0.002
운수 통신	0.026	0.038	0.037	0.041	0.046	0.041	0.057	0.051
도소매 음식숙박	0.034	0.038	0.058	0.074	0.068	0.045	0.052	0.063
부동산 리스 사업서비스	0.016	0.029	0.034	0.047	0.037	0.025	0.034	0.042
금융 보험	0.023	0.025	0.025	0.031	0.029	0.034	0.030	0.032
기타 서비스	0.011	0.019	0.013	0.017	0.015	0.019	0.021	0.01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건축자재 및 비금속광물	금속광물	기계 및 장비	건설	운수 통신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 리스 사업서비스	금융 보험	기타 서비스
농업	0.021	0.019	0.022	0.079	0.020	0.073	0.014	0.011	0.028
광업	0.119	0.141	0.065	0.085	0.077	0.028	0.025	0.017	0.034
음식료	0.005	0.005	0.006	0.008	0.004	0.033	0.004	0.003	0.008
섬유 직물	0.008	0.006	0.007	0.006	0.005	0.006	0.004	0.004	0.015
기타제조업	0.035	0.039	0.029	0.038	0.015	0.025	0.027	0.019	0.037
전력 수도 등	0.060	0.064	0.041	0.041	0.026	0.024	0.021	0.015	0.026
코크스 석유 정제 등	0.014	0.015	0.009	0.014	0.029	0.006	0.004	0.004	0.007
화학	0.053	0.035	0.065	0.047	0.022	0.026	0.020	0.013	0.044
건축자재 및 비금속광물	0.362	0.012	0.012	0.044	0.004	0.004	0.006	0.003	0.005
금속광물	0.040	0.393	0.097	0.087	0.022	0.016	0.026	0.012	0.018
기계 및 장비	0.053	0.054	0.422	0.072	0.064	0.044	0.079	0.034	0.042
건설	0.002	0.002	0.002	0.237	0.005	0.004	0.006	0.005	0.007
운수 통신	0.061	0.059	0.050	0.059	0.562	0.033	0.025	0.027	0.037
도소매 음식숙박	0.065	0.065	0.071	0.068	0.042	0.554	0.043	0.037	0.057
부동산 리스 사업서비스	0.040	0.040	0.051	0.062	0.036	0.058	0.638	0.084	0.056
금융 보험	0.045	0.031	0.034	0.033	0.053	0.048	0.044	0.699	0.029
기타 서비스	0.019	0.020	0.018	0.020	0.014	0.019	0.015	0.015	0.55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중국 통계청 「中國統計年鑑 2007」을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도출.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지표 추이와 전망							
		2007(P)	2008(E)	2009(E)	상반기	하반기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5.0	4.3	3.9	3.2	4.7	
	최종소비지출 (%)	4.7	2.7	2.3	2.0	2.6	
	민간소비 (%)	4.5	2.5	2.2	1.9	2.5	
	총고정자본형성 (%)	4.0	0.3	1.6	0.8	2.3	
	건설투자 (%)	1.2	-1.3	1.5	1.0	1.9	
	설비투자 (%)	7.6	1.2	2.3	1.2	3.4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	60	-103.5	-10	-30	20	
	통관기준	무역수지 (억 \$)	147	-90	-2	-10	8
		수출 (억 \$)	3,715	4,410	4,917	2,360	2,557
		증가율 (%)	(14.1)	(18.7)	(11.5)	(10.3)	(12.6)
		수입 (억 \$)	3,568	4,500	4,919	2,370	2,549
		증가율 (%)	(15.3)	(26.1)	(9.3)	(7.4)	(11.1)
기타	소비자물가 (평균, %)	2.5	4.7	3.9			
	실업률 (%)	3.2	3.3	3.4			
	국제유가(Dubai, \$)	68	100	80			
금융	원/\$ 환율 (평균, 원)	929.0	1,060.0	1,040.0			
	국고채금리 (3년만기, 평균 %)	5.23	5.45	5.3			
	회사채금리 (3년만기 BBB+ 무보증, 평균 %)	6.11	7.5	6.9			